

제 6회 충청중국포럼

“지방자원의 대 중국 전략”

- G2시대, 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

(금강대학교 한광수 총장)

일시 : 2015. 11. 25(수). 16:30-18:10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목 차

1. 프로그램	1
2. 강사소개	2
3. 발제자료(지방차원의 대 중국전략)	3
4.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소개	12

I. 행사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16:30-16:35	- 인사말 : 송두범(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사회 : 박 인 성 (충남연구 원 중국연 구팀장)
16:35-17:35	- 기조발표 : 한광수 총장(금강대학교)	
17:35-17:40	- 기념촬영	
17:40-17:50	- 보령머드축제 관련 영상 상영 : 최철구 주무관 (보령시청)	
17:50-18:10	-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18:10-	- 폐회선언 및 마무리	

II. 강사 소개

■ 한광수 총장 프로필

□ 직 위 : 금강대학교 총장

□ 학 력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수료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 박사

□ 경 력

산업연구원 연구원, 연구실장(1974-1978)
외무부 전문연구위원(1979~1981)
중국사회과학원 방문학자(1991~1992)
주중한국대사관 전문연구원(1991-1994)
인천대학교 중국통상담당 교수, 학장(1998-2012)



□ 주요 연구 성과

2015.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학회.

2014. 2.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 중국의 WTO 가입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포스코 경영연구.

2010. 4.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 WTO 가입 이후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학회.

III. 발제 자료

지방자원의 대 중국 전략

- 한광수 금강대학교 총장

16:35 – 17:35

지방 차원의 대중국 전략

- G2시대-중국시장-충남경제의 관점에서

2015. 11. 20

<지방차원의 중국시장 접근을 위하여>

- 각 지방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어서 기민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긴요한 실정임.
- 충남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 차원의 중국시장을 향한 경제협력이 최근 20여 년간 급증해왔음.
- 우리나라는 중국과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근접한 ‘자연적 무역 파트너 관계(Natural Trade Partnership)’에 있어, 중국과 과거의 단절을 딛고 상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협력관계의 수립이 당면 과제임.
- 현재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은 수출 세계 1위(2014), 무역 세계 3위, 직접투자 세계 3위, 무역흑자 누계 5천억 달러 등으로 예상을 뛰어넘어 중국시장을 활용하고 있음.
- 한중 교류는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사실상 단절 상태였음. 오랜 단절로 인해 우리는 중국에 대한 상대적 인식 측면에서 서방이나 일본에 비해 큰

격차가 존재함.

- 우리의 중국시장 접촉은 근대 이래 서방의 중국 접촉보다 150년 이상 뒤 떨어진 것이며, 최근의 중국시장 접근도 15-20년 뒤늦은 것임.
- 지난 500년 동안, 실제 한중 교류의 역사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명-청 시기 한중 접촉은 조공무역 형식의 제한된 교류에 그쳤으며,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까지, 조선의 혼란-제국주의 침략-분단과 한국전쟁-냉전 등으로 사실상 한중 교류는 단절상태였음.
- 오늘날 ‘중국 붐’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중국시장에 대한 치열한 의욕과 중국체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음.
- 이로 인하여 중국시장 의존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상의 시행착오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한 실정임.
-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대책보다는 당면한 시장 진출에 급급한 실정임.
- 현재 중국시장에 대한 인식의 파행은 ‘중국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중국시장’에 대한 ‘환상과 착각’으로 요약됨.
- 중국 거부감은 미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일대에 퍼져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이어져 대중국 안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중국에 대한 ‘환상과 착각’의 배경은 오랜 단절과 경제적 우월감, 반공 교육 등에 기인함.

- 중앙정부의 심각한 시행착오는 미중화해로 인한 충격(7.4 남북공동선언, 유신체제), 미중수교와 10.26사건, 홍콩반환-동남아 외환위기에 이은 IMF 강제 편입 등이 대표적임.
- 지방 차원(지자체)의 중국시장 진출은 아직 초보적임.
- 그 배경은 무엇보다 중국 전문가(언어와 문화, 체제와 시장에 대하여 교육된)의 태부족과 이에 대한 무대책에 있음.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국시장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다양한 불안정 요소들이 산재하여 있음.
- 여기서는 중국시장 진출에 관한 주요 주변 여건으로 ‘G2 시대’, ‘중국 경제’, 그리고 ‘우리 충남 경제’ 등 3 개 분야를 선정하여 접근하고자 함.

〈G2시대, 한반도-서해안〉

- 우리 서해안 지역은 중국경제의 핵심인 동부해안 지역과 마주보는 가장 근 거리에 위치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최적의 산업벨트임.
- 이미 우리는 미중 양국과 동시에 FTA를 활용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군사적 냉전에서 경제적 경쟁-협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 서해안 지역의 이러한 변화는 G2 시대 미중 양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에 서 접점을 찾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이곳에서 ‘협력-갈등의 이중구조’를 형성함.
- 우리 서해안 지역은 이러한 전환적 상황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미국의 군사기지와 중국을 향한 경제 공단이 뒤얽혀 미중 양국의 힘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양상임.
 - 평택과 군산, 제주도 강정마을 등은 중국대륙을 향한 주한미군기지로, 인천-당진-새만금-목포 등은 중국시장을 향한 산업기지로 변모하고 있음.
- 냉전시대 적대적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관계를 개선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도 제한적이거나 완화 조짐을 보여 왔음.
- 미중화해(1972)와 미중수교(1979) 등으로 출발한 미중 접근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시행착오와 충격을 겪어 왔음.
-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한중관계(수교; 1992.8)는 동남아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 강제편입(1997)과 중국의 WTO 가입(2001),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2008) 등으로 거센 풍파 속에서도 산업보완 구조를 토대로 상호 협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왔음.

〈중국경제 부상과 한중 밀착〉

- 지난 40년 동안 급부상 해온 중국경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세계경제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기는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음(개혁개방-시장경제-동남아외환위기-WTO가입-글로벌금융위기).
- 그 주요 특징을 보면,
 - 종래 적대적이던 미국 등 서방 선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협력
 - 수출주도 발전을 통하여 개도권을 대변하며 선진권과 수평적 관계 수립
 - 강력한 시장경제 개혁 속에 국유부문이 거대한 장애요인으로 여전히 잔존
 -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지방의 자율 정책이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문화적 응집력 보유
 - 최근 'New Normal(新常态)'시대 중국경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를 상회하는 서비스 주도 시대로 진입
 - PPP 기준 시장규모 면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2014, IMF), 21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시장규모는 미국을 두 배 이상 추월할 전망(1988 카네기 평화연구소)

〈한중 밀착에 대한 미국의 대응〉

- 한국경제는 중국 부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중국시장에 밀착되고 있음.
- 대중국 수출 세계 1위(2014), 교역 상대국 3위임. 수교 이래 지난 23년간 대중국 무역흑자 누계 5천억 달러(최근 3년 연속 연간 700-800억 달러 흑자, 무역의존도 23%).
- 이러한 한중 밀착 현상은 미국의 날카로운 대응(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 한국은 중국시장과 한미동맹의 양면 외교 추진으로 G2 시대의 불안정성에 대응. 선진 미국시장과 개도권 중국시장 동시 활용 전략 추구
- 한중수교(1992) -> 한국에 중국시장 붐 -> 동남아 외환위기(홍콩반환과 미 해지펀드 공격) -> IMF 강제편입(1997; 미 재무차관, 조선호텔에서 협상 지휘)-> 한국경제 자주권 상실 -> 폭락하는 증권·부동산 대거 매입
- 한미FTA 체결(2011);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1978) 이후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비밀리에 한미FTA 준비(1980년대 초) -> 중국, 한미FTA 비준 직후 한중FTA 협상 요구(2011) -> 체결 임박
- FTA 체결의 파급 효과는 한중FTA가 한미FTA를 크게 압도할 전망
- 한국, 미국의 견제 불구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80조 달러 잠재시장)
- 한국,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FTAAP 동시 지지(2015.11)

〈충남경제와 중국시장〉

-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 지역은 당진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산업 벨트를 형성
- 주요 업종은 석유화학, 제철, 반도체 등이나, 이와 관련한 중국 산업 동향이 최근 어두워져 충남의 주요 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충남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2.6%로 전국 1위(2011-2013년; 한국무역협회 / 2000년 45%, 2012년 75%).
- 중국시장은 근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변해 왔으며, 경제적으로 한국은 그 최대 수혜를 받아왔음.
- 지난 20세기 내내 중국은 체제와 경제 양 측면에서 가파른 변화를 이어왔음. 지난 40년간 세계 주요 국가들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중국은 향후 중속 성장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상대적 고속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향후 중국경제가 점차 고도화(금융구조, 산업구조, 수출구조, 소비구조 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혜와 함께 리스크에 보다 많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성장전략을 전반적으로 전환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며 G2로 부상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동시에, 한중경제 밀착 현상이 심화되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마찰 심화가 우려되고 있음.

〈지자체의 중국시장 진출〉

- 지자체의 중국시장 진출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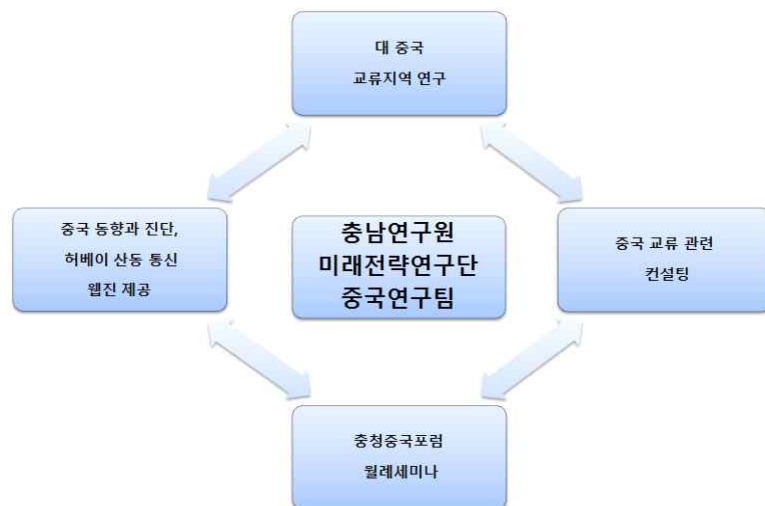
- 거대한 중국시장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전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
- 지자체 내 인재 중심의 ‘차이나 소프트 인프라’ 구축
- 지자체와 기업, 코트라 등의 역할 분담으로 협력 시너지 극대화

- 끝 -

Ⅳ.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레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허베이-산둥통신’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및 계획

날짜	강사	주제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5월 26일	강희정 교수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충남 당진시와 중국 허베이성 Tangshan시를 중심으로
	홍원표 박사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철강도시의 미래와 발전 방향
6월 25일	김한수 본부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8월 26일	김부용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9월 14일	한중3농포럼 (9월 포럼은 한중 3농포럼으로 대체합니다)	
	▪ 조영재 박사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3농혁신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 청야오 박사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 흑룡강성 3농 발전문제 연구 ▪ 탕빈위안 박사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 허베이성 낙농업 발전 및 지원 정책	
10월 28일	리홍보 교수 (중국쿤밍이공대학)	중국 신행도시화와 3농문제
	지만수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11월 25일	한광수 총장 (금강대학교)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12월	연말 휴가	
1월 27일	양광식 박사 (광양자유무역청)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유형과 과제’

※ 상기 일정은 발제자 섭외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MEMO

MEMO

MEMO

MEMO